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여성 경력단절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박경이**·심지현***

초 록

여성인재의 저활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경력단절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력단절 관련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324편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들의 키워드를 NetMiner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만을 정제하고 추출하였으며, 빈도분석, 키워드 필터링, 워드 클라우드 생성을 진행하였으며, 키워드 네트워크 생성, 시각화, 중심성 분석, 커뮤니티 분석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경력단절 관련 연구는 가족친화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등 관련 법 제화에 따라 연구량이 변화하였으며, 재취업, 자녀양육, 출산, 경제활동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실태분석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로 수행되어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은 높으나 매개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나, 조직문화, 사회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 등에 대한 다채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네트워크분석, 경력단절, 연구동향

* 본 논문은 박경이의 석사졸업논문을 재구성한 논문임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졸업생(kyungyipark@hanmail.net)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shimx013@sm.ac.kr)

I. 서론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여성 고용률은 51.6%, 남성 고용률은 70.7%로 남녀고용률의 격차가 19.1%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남녀 고용률의 차이가 24.7%였던 것에 비하면 여성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9년도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1.1%로 가장 높고, 50대 초반이 68.0%, 40대 후반이 67.4%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20). 한국 노동시장의 여성 고용률이 아직까지도 30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했다가 40대에 재취업으로 다시 증가하는 후진국형 M자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 어렵게 재취업을 한다 해도 경력단절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나 임금으로 하향취업이 이루어진다(권순원·이영지, 2010). 우리나라의 대졸 여성의 비율이 75%로 대졸 남성의 65%보다 10%가 더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선택하기보다, 일 혹은 가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서 인구재생산 및 노동력 재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방민희, 2010). 이처럼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미래의 노동·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비롯하여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등의 육아지원정책과 각종 돌봄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여성인력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오은진·박성정·장희영 2016; 박선영·김태환·권혜자·김정혜·김명아, 2017). 그러나 여성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고, 한국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 같이 입법화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민정, 2016). 이처럼 지속적인 정책 개입 및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재고해 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박고은, 2015; 국미애, 2014; 박선영 외, 2017).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실행에 따라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 저활용의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동향 분석은 일정한 주제영역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하여 연구의 흐름과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정연택·류호상, 2009). 최근에는 연구동향분석에 있어 전통적인 문헌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개체들의 속성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존의 통계분석 방법과 달리 연구자가 직접 제시한 키워드 간에 파악된 관계의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특성과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수상, 201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경력단절 분야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력단절 관련 연구가 어떤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향후 경력단절 연구 및 국가 경력단절 정책과 프로그램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네트워크분석과 분석기법

네트워크 과학은 초연결 사회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그 안에 얹혀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며 또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네트워크의 구성은 노드(node)와 링크(link)인데,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연결의 대상을 말하며, 링크는 노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즉 네트워크는 수많은 노드가 연결된 구조를 말하며, 이러한 연결을 ‘관계’라고 한다(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 간의 연결 관계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노드와 링크의 수준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역할과 행위에 대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

하고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주요 주제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최영출·박수정, 2010). 특히 원저자가 논문에 수록한 저자키워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이승훈·윤정현·성상현, 2019).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이 고용과 노동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성세실리아·정홍인, 2020; 임정연·심지현·이영민, 2018; 김현정, 2019). 임정연·윤지영(2018)은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국내 직장여성 대상 연구동향 분석에서 중심성 분석을 통해 직장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을 찾아냈으며,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의 세부 연구 주제들을 찾아냈다. 또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하위대상별 핵심 이슈를 분석해 대상별 연구주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연계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2. 네트워크의 속성과 분석기법

1)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

네트워크 분석은 기본 구성요소인 각 노드들의 속성과 노드 간의 관계에 대한 밀도나 연결정도 등의 속성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한다(이수상, 2012). 밀도는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드의 연결관계가 많으면,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이며, 각 노드 간의 상호 연관성이 깊다. 연결정도는 해당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개수로, 연결정도가 높으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연결 정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연결 강도는 노드와 노드가 연결되는 강도를 뜻하며, 노드 간 연결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지표가 된다(이수상, 2012).

2) 분석기법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심성분석,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등을 일반적으로 살펴본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한 노드(키워드)가 가지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들을 판별해내는 용도로 활용된다(이수상, 2018).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노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

로,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중심성 값이 높아지며, 이는 다른 키워드와 그만큼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은 핵심키워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Cyram, 2020).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해당 노드가 얼마나 네트워크의 중앙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트워크 전역에서 대표적인 영향력을 가진 노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확률적으로 빠르게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영향의 즉효성을 측정할 수 있다(Cyram, 2020).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최단 경로 개념을 이용해서 중심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노드 간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로 중심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자주 등장하면 중심성이 높아진다.

하위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은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몇 개의 노드 집합으로 구분하고 이들로 구성되는 하위 네트워크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노드의 유사성과 응집력, 관계의 완전성 등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특정한 텍스트의 그룹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토픽이라는 주제범주를 구분하는 기법이다. 전체 문헌들에 대하여 어떤 토픽이 존재하는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다. 토픽모델링은 전체적으로 연구들을 아우르는 토픽의 분류를 가능케 한다(이수상, 2018).

3. 경력단절분야 연구동향분석 연구

국내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동향분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중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2019년 발간되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1999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115편의 논문을 검토하여 연구시기, 주제, 방법, 대상, 수집방법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한운옥·이영민, 2019). 해당 연구에서는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 경력단절 경험 여성,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주목하였다. 2021년에 수행된 백평구, 김난희의 연구에서는 여성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연구」에서 2004-2020까지 발간된 273편의 논문을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주요한 연구 키워드들을 식별하고, 7개의 토픽별 두드러진 키워드를 정리하여 여성연구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국내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분석(임정연·윤지영, 2018)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분석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최현주·정귀임(2018)으로 파악된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자료검색은 연도의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검색창에서 완전일치 검색방법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을 주제로 검색하여 총 701건의 자료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 KCI 우수등재지만을 대상으로 재검색한 결과 498편이 1차 자료로 확보되었다. 1차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의거, 남성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나 해외의 경력단절 문제 등 본 연구와 관계없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또 중복논문과 저자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24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간은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까지는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관련 연구물이 없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RISS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Endnote에서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 발행 기관, 자료 유형, 수록 면, 발행연도, 발행지, 키워드, ISSN/ISBN, 초록, 목차’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dnote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NetMiner의 Biblio Data Collector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NetMiner 4.0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물 추출 및 선정 단계

단계	세부내용
키워드 검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경력단절'로 논문 검색
↓	
학술지 수집	KCI 등재, KCI 등재후보, KCI 우수등재 대상
↓	
데이터 추출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 발행 기관, 자료유형, 수록 면, 발행연도, 발행지, 키워드, ISSN/ISBN, 초록, 목차 수집
↓	
부적합 논문 및 중복논문 제외	추출된 논문 중 군복무로 인한 남성의 경력단절 및 해외 경력단절 관련 논문 등 제외, 중복논문 제외
↓	
최종논문 선정	최종 분석 대상 논문 324편 선정

2. 연구절차

경력단절 관련 연구동향을 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324편의 논문은 Riss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Endnote에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를 NetMiner의 Biblio Data Collector에서 불러내 형태소를 분석하였다. 이때 키워드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저자가 직접 등록한 키워드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정하였다. 셋째, 추출된 키워드들에 대해 정제작업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키워드 정제작업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분석의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수상, 2012; 정승환·호예담·송영수, 2014).

먼저 불필요한 키워드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 검색어인 '경력단절'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하고, 연구대상 고유명사인 '경력'과 '여성'도 제외시켰다. 또 출현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들 가운데 연구제목에 많이 쓰이는 '영향, 분석, 의의, 요인' 등의 용어와 '매개효과, 조절효과, 질적연구'와 같은 용어들을 제거했다. 이 같은 키워드들은 다른 키워드들과 지나치게 연결이 많아져 유사성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상, 2012).

이어서 같은 의미의 키워드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 빈도분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사어를 지정하고, 핵심어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왜곡되지 않

도록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키워드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정제작업은 NetMiner를 사용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실시한 선행연구들(임정연·심지현·이영민, 2018; 임정연·윤지영, 2018; 정승환·호예담·송영수, 2014)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키워드 정제작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정제작업의 기준은 한글 키워드로 한정하였다. 한글과 영문이 혼용된 경우 한글만 사용하고, 영문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는 붙여쓰기로 변환하였고, 무의미한 조사를 제거하였다. 셋째,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들의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인 키워드로 통일시켰다. 예를 들어 ‘재취업,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시장 복귀, 여성재취업’은 ‘재취업’으로 통일시켜 사용하였다. 넷째, 두 가지의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는 개념을 분리시켰다. 즉, ‘재취업간호사’의 경우 ‘재취업’과 ‘간호사’로 분리시켜 적용하였다. 다섯째,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위개념의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취업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정책, 취업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취업지원’으로 통일하였다.

〈표 2〉 키워드 정제작업(예시)

기준	원자료(예시)		정제 후
영어 정리	한글+영어	재취업, re-employment	영어삭제→ 재취업
	한글(영어)	돌봄노동(Care work)	영어삭제→ 돌봄노동
	영어만 제시	vocational education	한글번역→ 직업교육
정제 / 삭제 작업	띄어쓰기 정리	성 차별	성차별
	조사삭제	일과 삶의 균형	일·삶균형
		학력간 차이	학력차이
		가족의 지지	가족지지
	연구대상 고유명사 및 검색어 삭제	여성, 경력단절, 경력, 경력단절여성	삭제
유사 의미 통합	재취업,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시장 복귀, 여성재취업		재취업
	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참가, 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참가, 여성 경제활동		경제활동
	고학력, 대졸, 4년제 대졸, 고학력자		고학력
	성별임금격차, 남녀임금격차, 남녀임금차이, 성별임금차별		성별임금격차
	성평등, 양성평등, 남녀평등		성평등
	시간제, 시간선택제, 시간제 일거리,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성불평등, 성별격차, 성차별, 성별화, 노동시장 성불평등		성불평등
유사 의미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유연성		유연근무제

기준	원자료(예시)	정제 후
통합	일·가족양립, 일·가족생활양립, 일가정균형, 일·가족 양립 문제, 일·가정균형, 일·가정양립, 일-가족 양립	일·가족양립
	취업모, 워킹맘, 취업주부, 양육기 기혼여성, 자녀양육 여성근로자	취업모
복합어 분리	중소기업재취업	중소기업, 재취업
	고학력중년여성	고학력, 중년여성
	재취업간호사	재취업, 간호사
상위 개념 통합	가족지지, 가족의 정서적 지지, 남편의 도구적 지지, 배우자 지지	가족지원
	경력계획, 경력설계, 경력개발계획, 경력전략	경력개발
	아동, 아이, 유아, 학령기자녀, 취학아동, 취학자녀	자녀
	취업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정책, 취업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3. 분석방법

정제과정을 거쳐 추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NetMiner 4.0을 이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력단절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논문의 연도별 게재현황과 학술분야별 게재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만을 추출했다. 추출된 단어는 모두 217개였으며, 노출빈도 상위 기준 키워드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문서 내 단어들의 연관성을 통해 토픽을 분류하는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후 단어-논문 간의 연결(2-mode Network)을 통해 단어등장 논문 수 기준으로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등장논문 수 5회 이상인 핵심 키워드 64개를 추출하였다. 또 단어-논문(2-mode Network) 형태를 단어-단어(1-mode Network) 형태의 행렬로 변환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64개의 단어가 생성한 링크수는 731개였다. 이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PFnet을 통해 키워드 간 연관성이 높은 관계만을 남겨 시각화하였다.

또한 1 mode로 변환된 단어-단어 매트릭스를 통해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단어동시출현 핵심 키워드를 추출했으며, 추출된 키워드 간의 속성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고 시각화하였다. 이후 경력단절 관련 연구의 하위 연구영역 간 그룹을 형성하여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데이터를 분리하여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

드와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간 연관성이 높은 관계만 남겨서 시각화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경력단절 연구현황 및 핵심주제

경력단절과 관련된 연구 324편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여성인력활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논문 수는 2019년도에 4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에 39편, 2016년 37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연구자료 수집 시 연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2000년 이전의 경력단절 관련 논문은 매우 드물었다. KCI에 등재된 2000년 이전의 여성 경력단절 관련 연구물로는 노공균·조남훈(1987), 최강식·정진화(1997)의 논문이 있었으나, 저자키워드도 초록도 없어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2000~2007년까지 KCI에 등재된 여성 경력단절 관련 논문 중 저자키워드가 제시된 논문은 총 10편에 불과할 만큼 그 시기에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충분히 학문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08년에 관련논문이 8편으로 갑자기 급증했는데, 이는 2007년에 ‘가족친화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정책이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에 ‘경력단절여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2009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립되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2010년에는 관련논문이 17편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가 이듬해에 다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과 약간의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표 3〉 발행연도별 논문빈도 분석 결과

발행연도	빈도	비율	발행연도	빈도	비율
2001년	2	0.6%	2012년	14	4.3%
2002년	3	0.9%	2013년	12	3.7%
2003년	1	0.3%	2014년	26	8.0%
2004년	1	0.3%	2015년	39	12.0%
2005년	1	0.3%	2016년	37	11.4%
2007년	3	0.9%	2017년	31	9.6%
2008년	8	2.5%	2018년	36	11.1%
2009년	8	2.5%	2019년	49	15.1%
2010년	17	5.2%	2020년	29	9.0%
2011년	7	2.2%	총합계	324	100%

2. 경력단절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1) 주요키워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경력단절’ 관련 논문 324편에서 1,737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이 중 빈도분석을 통해 국내 경력단절 연구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자 등장논문 수 5회 이상인 키워드 64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상위키워드 분석은 경력단절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관심주제와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유효하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논문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재취업(85회)으로, 경력단절 관련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양육(74), 출산(63), 경제활동(59), 결혼(41), 고학력(38), 육아 휴직(24), 여성인적자본(24), 가사노동(24), 시간제(22), 취업지원(22), 돌봄노동(21), 경력개발(20) 등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순서	키워드	빈도
1	재취업	85
2	자녀양육	74
3	출산	63
4	경제활동	59
5	결혼	41
6	고학력	38

순서	키워드	빈도
7	육아휴직, 여성인적자본, 가사노동	24
10	시간제, 취업지원	22
12	돌봄노동	21
13	경력개발	20
14	사회적지지, 직업훈련, 비정규직	19
17	저임금	14
18	전일제	13
19	직업교육, 성불평등, 근로조건	12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모, 정규직	11
25	진로적응, 평생교육, 진로장벽, 출산전후휴가	10
29	일·가족양립, 진로준비행동, 직무만족 진로상담, 성평등, 저출산	9
36	성별임금격차, 경력계획, 여성인력개발센터	8
39	일·삶균형, 미취학자녀, 사회서비스	7
42	가족친화제도, 고용보험, 자기효능감 임금 손실, 노동공급, 교육수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원인, 고용안정, 정책지원, 고용지원	6
53	모성보호제도, 경력관리, 창업의지, 구직효능감, 고용유지, 가족지원, 유연근무제,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경력단절예방, 좋은 일자리, 직업이동, 인적자원개발, 여성인적자원개발	5

2) 토픽모델링에 의한 토픽분류

국내 경력단절 연구의 주제 분석을 위해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실시했다. 최적의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NetMiner 4.0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알파값은 Griffiths 와 Steyvers(2004)가 제안한 대로 ‘50/토픽수’로 계산해 0.15를 사용했으며, 베타값은 그들이 가장 최적값이라고 제시한 0.01을 사용했다(Cyram, 2020). # of iteration은 1000회를 사용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경력단절에 관한 토픽분류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크게 7개의 주제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경력단절 원인, 경력단절 지원제도, 재취업 유지(각 19%)로 나타났으며, 재취업 지원(1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12%), 재취업 의지(12%), 재취업 관련(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토픽모델링을 통한 경력단절 토픽분류결과

토픽#	1st키워드	2nd키워드	3rd키워드	4th키워드	5th키워드	주제 분류
1	출산	결혼	자녀양육	경제활동	저출산	경력단절 원인
2	사회적 지지	진로적응	직무소진	구직 효능감	자아존중감	재취업 의지
3	시간제	전일제	임금 손실	결혼	인적자원 개발	기혼여성 경제활동 실태
4	돌봄노동	비정규직	성불평등	근로조건	저임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5	일·가족 양립	여성 인적자본	자기 효능감	성평등	사회적 일자리	경력단절 지원제도
6	창업의지	가족 친화제도	구직 경로	일·삶 균형	심리사회적 기능	경력단절 지원제도
7	육아휴직	모성 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직무만족	직업정보 인지도	경력단절 지원제도
8	고학력	성별 임금격차	자녀양육	결혼	모성벌칙	경력단절 원인
9	진로준비행동	초단시간근로	진로장벽	진로상담	정체성위기	재취업관련
10	직업훈련	취업지원	경력개발	직업교육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재취업지원
11	경제활동	직업교육	개인특성	여성 인적자본	교육수준	재취업지원
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교육	경력지속	교육요구	진로단절 위기경험	재취업의지
13	자녀양육	가사노동	취업모	노동공급	양육경험	경력단절 원인
14	재취업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진로 유연성	고용유지	사회적기업	재취업유지
15	고학력	평생교육	취업모	고용보험	미취학자녀	재취업유지
16	경력개발	경력관리	경력계획	직장복귀	사회연결망	재취업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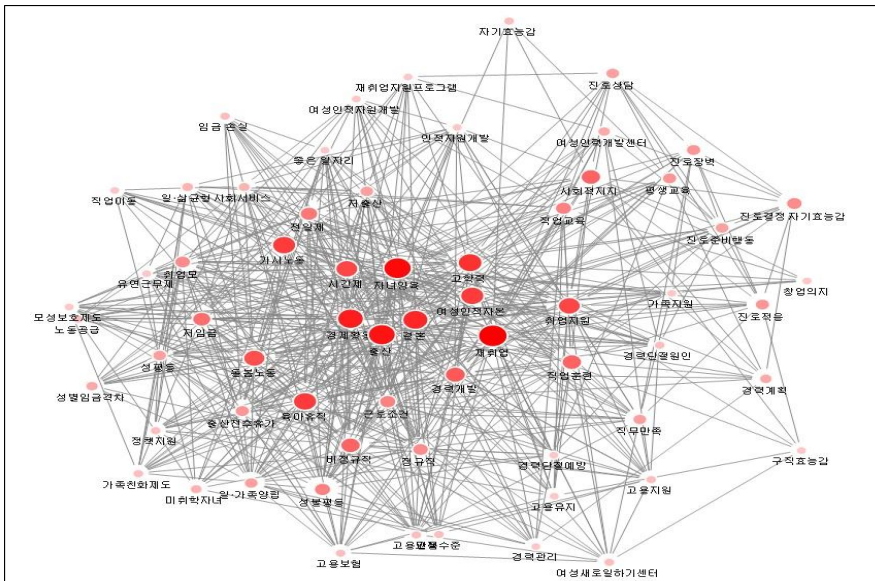
3) 상위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구조

주요 키워드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단어와 논문 간의 이원모드 (2-mode Network)를 단어와 단어 간의 일원모드 (1-mode Network)로 변환시켰다. 등장논문 수 기준으로 선정한 주요 키워드는 64개였으나 단어와 단어가 동시출현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한 결과 나타난 링크는 731개로 나타났다.

단어와 논문 간의 이원모드를 단어와 단어 간의 일원모드로 변환시키면 링

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단어 간 연관성이 높은 관계만을 남겨 단어 간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PFnet(Path Finer Network Scaling)을 실시하였다. 링크를 축소하여 단어 간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네트워크를 축약화 한 이후의 결과물은 하단의 그림과 같다. 동그라미의 크기가 크고 붉은색이 진할수록 등장논문수 기준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이고, 연결선이 굵을수록 링크 강도가 높다.

연관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출산, 자녀양육, 결혼과 같은 경력단절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중심에 집약적으로 모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고학력-재취업-취업지원-고용지원-직업훈련-직업교육’ 등 재취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사노동-근로조건-돌봄노동-성평등-일·가족양립-정책지원’ 등 경력단절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분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경제활동-여성인적자본-창업의지-가족지원’ 등 여성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고, 경력단절 이후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진로관련 키워드들이 상황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간제-비정규직-정규직(저임금)-성불평등-경력관리-경력계획’ 등 노동시장 구조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고,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가족친화제도-일·삶 균형’ 등 모성보호 제도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경력단절 관련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3. 경력단절 관련 연구의 중심성 분석

1) 연결중심성 분석

중심성은 단어의 관계빈도와 구조적 위치를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단어의 영향력과 해당 단어가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준다. 경력단절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고 상위 40개 핵심키워드를 추출했다. 연결중심성은 다른 키워드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설명하는 지표로써, 한 점에 연결된 다른 점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 측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개념 및 변수들과 연결되어 연구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동향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어는 다른 핵심어와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으며 그 주제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승환·호예담·송영수, 2014).

〈표 6〉 연결중심성 상위 25개 핵심키워드

순위	키워드	연결중심성
1	재취업	0.949
2	자녀양육	0.897
3	결혼	0.846
4	출산	0.846
5	경제활동	0.821
6	고학력	0.769
7	시간제	0.744
8	경력개발	0.718
9	여성인적자본	0.718
10	취업지원	0.667
11	근로조건	0.641
12	돌봄노동	0.641
13	비정규직	0.641
14	직업훈련	0.641
15	가사노동	0.615
16	육아휴직	0.615
17	정규직	0.615
18	전일제	0.590
19	성불평등	0.564

순위	키워드	연결중심성
20	취업모	0.513
21	성평등	0.487
22	일·가족양립	0.487
23	저임금	0.487
24	출산전후휴가	0.487
25	사회서비스	0.462

분석결과 국내 경력단절 관련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핵심키워드는 재취업(0.949)이었으며, 자녀양육(0.897), 결혼(0.846), 출산(0.846), 경제활동(0.821), 고학력(0.769), 시간제(0.744), 경력개발(0.718), 여성인적자본(0.718), 취업지원(0.667)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키워드 연결중심성 시각화 Spring에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이 클수록 더 커지고 붉은색도 더 선명해진다.

경력단절 키워드 연결중심성 Concentric 시각화 분석은 원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중심성이 비슷한 키워드를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원 중앙에 가까운 단어일수록 중심성이 높다. 재취업, 자녀양육이 원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결혼, 출산, 경제활동이 그 다음에 배치되어 있어 경력단절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임을 보여준다.

2) 근접중심성 분석

연결중심성이 직접 연결된 노드의 개수만을 파악하는 반면, 근접중심성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노드 간의 거리까지 파악해서 연결 중심성보다 넓은 범위에서 중심성을 측정한다. 이와같이 간접적인 노드 간의 관계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핵심 노드(키워드)와의 관계가 많다는 뜻이고, 다수의 핵심 노드들과의 관계를 통해 관련 주제의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노드일 가능성이 높다.

경력단절 연구에서 직접적인 연결중심성 외에 네트워크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진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근접중심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재취업(0.951)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자녀양육(0.907), 결혼(0.867), 출산(0.867), 경제활동(0.848), 고학력(0.813), 시간제(0.796), 경력개발(0.780), 여성인적자본(0.780), 취업지원(0.750) 등이 주요 핵심어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최소 단계로 연결되므로 전반적인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성세실리

아·정홍인, 2020).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재취업이 가장 중심에 위치해 경력단절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 출산, 경제활동, 결혼, 고학력, 시간제, 여성인적자본, 경력개발, 취업지원 등의 키워드가 다수의 핵심키워드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력단절 관련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근접중심성 상위 25개 핵심 키워드

순위	키워드	근접중심성
1	재취업	0.951
2	자녀양육	0.907
3	결혼	0.867
4	출산	0.867
5	경제활동	0.848
6	고학력	0.813
7	시간제	0.796
8	경력개발	0.780
9	여성인적자본	0.780
10	취업지원	0.750
11	근로조건	0.736
12	돌봄노동	0.736
13	비정규직	0.736
14	직업훈련	0.736
15	가사노동	0.722
16	육아휴직	0.722
17	정규직	0.722
18	전일제	0.709
19	성불평등	0.696
20	취업모	0.672
21	성평등	0.661
22	일·가족양립	0.661
23	저임금	0.661
24	출산전후휴가	0.661
25	사회서비스	0.650

3) 매개중심성 분석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자나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중개역할을 ‘중심’으로 간주할 때 사용한다(이수상, 2012). 매개중심성은 다른 노드 간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로 측정하는데,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흥미롭게,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에 비해 매개중심성은 상당히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온 재취업도 중심성이 0.073에 불과하고, 자녀양육(0.048), 결혼(0.036), 출산(0.036), 고학력(0.032), 여성인적자본(0.029), 경제활동(0.027) 등 상위권의 키워드도 중심성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개중심성이 낮은 이유는 네트워크 내 매개 역할을 하는 노드 자체가 적어 중심성이 낮아, 평균값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력단절 관련 연구의 키워드 간 연결중심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 매개중심성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그만큼 경력단절연구가 파편화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매개중심성이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다른 연구동향 분석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임정연·위영은, 2019; 성세실리아·정홍인, 2020).

〈표 8〉 매개중심성 상위 25개 핵심 키워드

순위	키워드	매개중심성
1	재취업	0.073
2	자녀양육	0.048
3	결혼	0.037
4	출산	0.036
5	고학력	0.032
6	여성인적자본	0.029
7	경제활동	0.027
8	경력개발	0.024
9	취업지원	0.020
10	직업훈련	0.018
11	시간제	0.015
12	근로조건	0.013
13	사회적지지	0.011
14	직업교육	0.009

순위	키워드	매개중심성
15	가사노동	0.009
16	돌봄노동	0.009
17	비정규직	0.007
18	육아휴직	0.006
19	정규직	0.006
20	전일제	0.005
21	진로준비행동	0.005
22	취업모	0.004
23	직무만족	0.004
2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004
25	성평등	0.004


4) 각 키워드별 비교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서로 비교하면,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과 내용면에서나 순위에서 크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9〉 경력단절 관련 주요 키워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비교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재취업	0.949	재취업	0.951	재취업	0.073
2	자녀양육	0.897	자녀양육	0.907	자녀양육	0.048
3	결혼	0.846	결혼	0.867	결혼	0.037
4	출산	0.846	출산	0.867	출산	0.036
5	경제활동	0.821	경제활동	0.848	고학력	0.032
6	고학력	0.769	고학력	0.813	여성인적자본	0.029
7	시간제	0.744	시간제	0.796	경제활동	0.027
8	경력개발	0.718	경력개발	0.780	경력개발	0.024
9	여성인적자본	0.718	여성인적자본	0.780	취업지원	0.020
10	취업지원	0.667	취업지원	0.750	직업훈련	0.018
11	근로조건	0.641	근로조건	0.736	시간제	0.015
12	돌봄노동	0.641	돌봄노동	0.736	근로조건	0.013
13	비정규직	0.641	비정규직	0.736	사회적지지	0.011
14	직업훈련	0.641	직업훈련	0.736	직업교육	0.009
15	가사노동	0.615	가사노동	0.722	가사노동	0.009
16	육아휴직	0.615	육아휴직	0.722	돌봄노동	0.009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근접 중심성	키워드	매개 중심성
17	정규직	0.615	정규직	0.722	비정규직	0.007
18	전일제	0.590	전일제	0.709	육아휴직	0.006
19	성불평등	0.564	성불평등	0.696	정규직	0.006
20	취업모	0.513	취업모	0.672	전일제	0.005
21	성평등	0.487	성평등	0.661	진로준비행동	0.005
22	일·가족양립	0.487	일·가족양립	0.661	취업모	0.004
23	저임금	0.487	저임금	0.661	직무만족	0.004
24	출산전후휴가	0.487	출산전후휴가	0.66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004
25	사회서비스	0.462	사회서비스	0.650	성평등	0.004

*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에 나타나지 않고 매개중심성에 새롭게 등장한 주요 키워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키워드에 비해 3단계 이상 상향 배정된 매개중심성 키워드

 고딕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키워드에 비해 4단계 이상 하향 배정된 매개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많이 연결되어 함께 연구되고,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짧은 단계를 거쳐 간접적인 다른 키워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키워드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세부연구 영역을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융합연구 또는 학제 간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이화진, 2020; 이효섭·조대연, 2020; 우성미·오소영, 2019).

재취업 키워드는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아 여성 경력단절연구에서 다른 주제와 함께 연구되는 대표적인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매개중심성은 중심성이 낮지만 키워드의 내용은 흥미롭다.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요키워드들은 경력단절 원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재취업을 위한 국가적 지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정책사업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인 요소보다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에 관한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구직활동과 관련해 여성개개인들의 심리적 요인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에는 없고 매개중심성에만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로는 ‘사회적지지, 직업교육, 진로준비행동, 직무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에 있는 키워드와 매개중심성에 있는

키워드의 위치 차이도 눈여겨볼만 하다. 여성인적자원 활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여성인적자원’과 ‘직업훈련’이 연결중심성·근접중심성에 비해 3-4단계 상향 위치해있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연관된 키워드인 ‘시간제, 돌봄노동, 비정규직, 성평등’은 4단계 하향 되어 있고, ‘경제활동, 육아휴직, 정규직, 전일제, 취업모’는 2단계 하향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정책의 시행 등에 따른 연구동향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경력단절 관련 연구들은 결혼, 임신, 출산을 전후로 단절되는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민현주, 2012; 박수미, 2003; 박경숙·김영혜, 2003),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나 모성보호제도, 재취업활동 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 무렵부터 점차 여성의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에 따라 직업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서경희·곽원준·심지현 2015; 이희정·김금미, 2010; 신수정·이인희, 2018).

또 매개중심성 23위로 새롭게 올라온 ‘직무만족’은 경력단절 예방이나 여성의 경력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다. ‘직무만족’과 같은 주제가 부각된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경력단절 후 재취업’으로 접근한 정책연구와 차이점을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매개중심성이 낮아, 이와 유사한 주제들이 보다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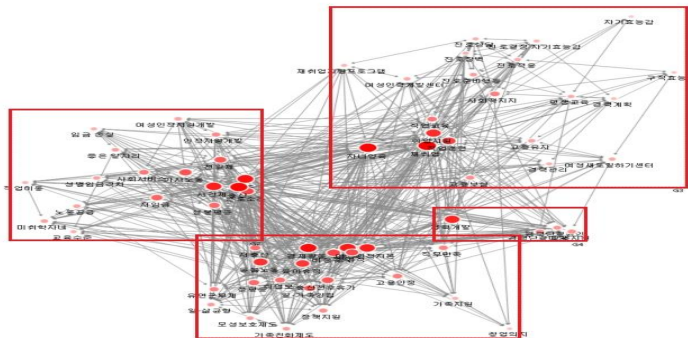
5) 경력단절 연구의 커뮤니티 분석

커뮤니티 분석은 공통의 주제와 관련된 하위 연구영역 간 그룹을 형성시키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주제키워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손동원, 2013). 커뮤니티는 그룹 내 링크가 그룹 간 링크보다 많도록 분류된 노드들의 집합으로, 커뮤니티가 얼마나 구조화되었는지는 Modularity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한 결과 Modularity 값이 0.1329로 나와, 그룹 내 링크 밀도가 높고, 유의하게 커뮤니티가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집된 그룹의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경력단절예방 및 일·가정양립지원, 재취업활동 지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경력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경력단절연구 커뮤니티별 세부 키워드

주제구분	세부 키워드
G1 일·가정양립지원	경제활동, 출산, 여성인적자본, 고학력, 비정규직, 정규직, 육아휴직, 돌봄노동, 출산전후휴가, 일·가족양립, 일·삶균형, 가족친화제도, 성평등, 모성보호제도, 유연근무제, 고용안정, 정책지원, 취업모, 직무만족, 고용안정, 창업의지, 가족지원, 저출산
G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결혼, 시간제, 근로조건, 성불평등, 저임금, 가사노동, 전일제, 사회서비스, 성별임금격차, 인적자원개발, 임금 손실, 좋은 일자리, 직업이동, 교육수준, 노동공급, 미취학자녀, 여성인적자원개발
G3 재취업활동 지원	재취업, 직업훈련, 자녀양육, 취업지원, 직업교육, 진로장벽, 진로결정, 경력계획, 경력관리, 사회적지지, 고용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자기효능감,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진로상담, 진로적응, 진로준비행동, 고용보험, 구직효능감, 평생교육
G4 경력개발	경력개발, 경력단절예방, 경력단절원인, 고용지원

G1에서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는 키워드는 경제활동, 출산, 여성인적자원, 고학력, 비정규직으로, 출산한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G2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결혼, 시간제, 근로조건, 성불평등, 저임금, 가사노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성차별적인 근로조건들과 성불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응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3는 재취업, 직업훈련, 자녀양육, 취업지원, 직업교육 등의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재취업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G4는 경력개발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예방, 경력단절원인, 고용지원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경력단절 관련 키워드 커뮤니티 분석 시각화

6) 시기별 주요 키워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1~2020년 간의 학술자료를 수집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 인구동향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물론 사회·국가적인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박선영 외, 2017).

따라서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동향을 각 시기별로 핵심키워드와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를 구분하였다. 시기의 설정에 대해서는 연구의 주제가 5년 단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이진희 외, 2011; 황서이·황동열, 2018), 1차 시기(2001-2005년), 2차 시기(2006-2010년), 3차 시기(2011-2015년), 4차 시기(2016-2020년)로 분할하였다.

〈표 11〉 경력단절 관련 시기별 주요 키워드 변화

순위	1차 시기 (2001-2005년)	2차 시기 (2006-2010년)	3차 시기 (2011-2015년)	4차 시기 (2016-2020년)
1	경제활동	재취업	자녀양육	재취업
2	재취업	출산	재취업	자녀양육
3	여성인적자본	경제활동	경제활동	출산
4	결혼	고학력	출산	결혼
5	자녀양육	자녀양육	고학력	경제활동
6	노동공급	돌봄노동	결혼	고학력
7	가사노동	경력개발	육아휴직	육아휴직
8	출산	취업지원	여성인적자본	경력개발
9	직업훈련	결혼	시간제	직업훈련
10	전일제	여성인적자본	취업지원	시간제
11	유연근무제	일·삶균형	비정규직	사회적지지
12	생애과정단계	직업교육	가사노동	가사노동
13	비정규직	진로상담	성불평등	돌봄노동
14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	가사노동	저출산	취업지원
15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취업모	근로조건
16	고학력	여성인력개발센터	저임금	여성인적자본

* 모든 시기에 공통으로 상위권에 등장하는 키워드

시기별로 변동하는 키워드

각 시기에 상위권으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시기별 주요 키워드의 변화를 보면 경력단절과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 즉 재취업, 자녀양육, 출산, 결혼, 경제활동, 고학력, 여성인적자본, 가사노동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적인 연구주제로 사용되며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시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은 각 시기별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경제, 사회 상황 등에 따라 특정 주제가 부각되는 등 관심사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시기에는 노동공급, 직업훈련, 전일제, 유연근무제, 생애과정단계, 비정규직,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 노동시장 구조가 새로운 단어로 등장했다. 2차 시기에는 돌봄노동, 경력개발, 취업지원, 일·삶균형, 직업교육, 진로상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로 등장했고, 3차 시기에는 육아휴직, 시간제, 성불평등, 저출산, 취업모, 저임금, 4차 시기에는 사회적지지, 근로조건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는 20년 동안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효진·은선경, 2012).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여성 경력단절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력단절 관련 연구가 어떤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2020년까지의 ‘경력단절’로 추출된 논문의 저자키워드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성 경력단절 관련 연구는 2007년까지 한 해 0-3편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7년도에 ‘가족친화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도에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용이 늘어나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발표 이후 관련 연구가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경력단절 연구가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 주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관련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늘고 관련 연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이 같은 연구와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경력단절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는 ‘재취업’이 1위이고, 자녀양육, 출산, 경제활동, 결혼, 고학력, 육아휴직, 여성인적자본, 가사노동, 시간제, 취업지원, 돌봄노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돌봄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성차별적 인식과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는 관행이나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회사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관련 연구에서 ‘성차별’ 키워드의 순위는 반복 빈도 5회 이상 순위에오르지 않았다. 이는 향후 국내의 경력단절 관련 연구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조적·사회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출산’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경제활동-자녀양육, 경제활동-출산, 결혼-출산, 가사노동-자녀양육, 결혼-자녀양육, 자녀양육-재취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관련 연구에서 자녀양육, 출산, 결혼이 미치는 영향과 재취업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경력단절 관련 연구가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결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사건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은 이에 따라 육아휴직과 돌봄지원 등에 주력해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육아휴직 요건과 사용기간, 급여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늘려 노동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미애·이화용, 2017). 또 박선영 외(2017)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사건과 관련된 것으로만 판단하고 정책을 실행할 경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의 해결책을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의 생애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없게 하는 조직관행과 사회적 성역할 분리의 영향과 같은 그 이면의 복합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토픽분류를 통해 확인한 국내 경력단절 토픽 트렌드는 경력단절 원인, 일·가정 양립지원, 재취업 유지, 재취업 지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재취업 의지, 재취업 관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따른 경력단절 관련 연구의 주제도 G1 일·가정 양립지원, G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G3 재취업활동 지원, G4 경력개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주제의 동향은 경력단절 관련 연구가 대부분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재취업 지원보다는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조동훈, 2016; 국미애·이화용, 2017; 박선영 외, 2017; 이우권, 2019). 최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그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경력단절 이후의 사후적 처방보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는 사전적 대응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입장에서의 연구 뿐 아니라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기업문화, 사회문화 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활용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심성 분석결과는 ‘재취업’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에서 모두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재취업임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경력단절 연구의 핵심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개중심성은 중심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과 달리 중심성이 매우 낮게 나왔으나, 관련 키워드는 경력단절 연구에 있어 향후 연구주제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경력단절 관련연구가 실태분석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가 많은 반면,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과 기업의 조직문화, 사회적 환경, 심리적 환경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다채롭고 실천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경력단절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과 연구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력단절 주제로 수행된 최초의 네트워킹 분석 연구라는 의의는 있지만 방법론 자체가 저자들이 연구한 핵심주제인 키워드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구방식이나 연구대상과 같은 주요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정된 분량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는 논문의 특성상 국내 경력단절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정책적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는 아쉬움을 가진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2016).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현실과 대책. 제104차 양성평등정책포럼.
- 국미애(2014).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왜 경력이 단절되었을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국미애·이화용(2017).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권순원·이영지 (2010). “여성의 경력단절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업경제연구. 제39권 제1호. 45-57.
- 김현정(2019).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직업기초능력 연구 동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공균·조남훈(1987). “우리나라의 출산력과 가정경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10권 제2호, 17-45.
- 민현주(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의 적용”. 한국사회학. 제46권 제2호, 61-87.
-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여성의 생애 유형-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예의 함의”. 한국인구학. 제26권 제2호, 63-90.
- 박고은(2015). 왜 한국여성은 경력단절을 선택하는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5-105.
- 박선영·김태환·권혜자·김정혜·김명아(2017).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미(2003).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43-80.
- 박효진·은선경(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1호, 5-29.
- 방민희(2010). 2010 여성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 백평구·김남희(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술지 ‘여성연구’의 연구동향 탐색”. 여성연구. 제110권 제3호. 159-194.
- 서경희·곽원준·심지현(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 제5권 제4호. 57-88.
- 성세실리아·정홍인(2020).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고용가능성 연구동향 분석: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직업과 자격연구*. 제9권 제4호. 21-40.
- 신수정·이인희(2018).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과 사회적 지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제22권 제4호. 145-160.
- 오은진·박성정·장희영(201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성미·오소영(2019).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국내 여성 리더십 연구 동향”. *여성연구*. 제101권 제2호. 5-34.
-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_____(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서울: 청람.
- 이승훈·윤정현·성상현(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분야 세계 연구 동향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제14권 제3호. 72-93.
- 이우권(2019).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제19권 제2호. 1-20.
- 이희정·김금미(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623-640.
- 이화진(2020).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직업윤리 연구 동향”. *직업과 자격연구*. 제9권 제3호. 81-105.
- 이효섭·조대연(2020).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국내 전환학습 연구 동향”. *평생교육학연구*. 제26권 제1호. 1-24.
- 임정연·윤지영(2018).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직장여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제57권 제1호. 201-236.
- 임정연·위영은(2019).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직업교육훈련의 연구동향 분석”. *직업과 자격연구*. 제8권 제1호. 17-44.
- 임정연·심지현·이영민(2018).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자격연구의 동향과 과제”. *직업과 자격연구*. 제7권 제1호. 73-100.
- 정승환·호예담·송영수(2014).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국내 HRD 연구동향 탐색”. *HRD연구*. 제16권 제3호. 1-33.
- 정연택·류호상(2009). “지체장애인 특수체육관련 연구동향분석: 1985-2008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제52호 제2호. 127-150.

- 조동훈(2016).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 *勞動經濟論集*. 제39권 제4호. 81-100.
- 최강식·전진화(1997). “여성의 노동시장경력 단절현상과 대책”. *산업관계연구*. 제7권. 381-407.
- 최영출·박수정(2010). “지역교육청 기능 재검토를 위한 초등학교 공문서 분석: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165-188.
- 최현주·정귀임(2018). “간호사 경력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325-336.
- 통계청·여성가족부(2020. 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운옥·이영민(2019).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27-43.
- Cyram(2020). *NetMiner 4.4*. Seoul: Cyram Inc.
- Steyvers, M., & Griffiths, T.(2007). *Probabilistic topic models*. *Handbook of Latent Semantic Analysis*. T. K. Landauer, D. S. McNamara, S. Dennis, W. Kintsch(Ed.). NJ: Erlbaum.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career breaks in Korea using network analysis

Kyungyi Park*·JiHyun Shim**

The problem of career interruption due to marriage, pregnancy, and childbirth of women is not easily solved in Korea. Many related studies are needed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career disconnection, and this study examined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career disconnection through network analysis, and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related to career disconnection.

In this study, 324 papers were selected and the keywords of the papers were analyzed using NetMiner 4.0. Keywords are extracted, frequency analysis, keyword filtering, word cloud generation were performed, and topic modeling, keyword network generation, visualization, and centrality analysis were attempted.

As a result, the amount of research related to career disconnection in Korea changed according to related legislation such as the Family-Friendly Act, the Gender Employment Equal Act, and the Career Disconnected Women's Act, and keywords such as reemployment, child rearing, childbirth, and economic activity accounted for a high frequency. Most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on actual situation analysis or policy, and it was confirmed that connection centrality or proximity centrality was high but mediation centrality was low. In the future,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labor market related to women's economic activities, or various studies on organizational culture, soci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was suggested.

Keywords : Career breaks, research trends, network analysis

* Master in HR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HRD, Sookmyung Women's University